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3일 목요일 음 1월 20일 (12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8-10℃, 낮 최고 기온은 14-16℃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sunset and moonrise/set times for Jeju.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food poisoning and cold risk levels.

월드뉴스

이집트 인구 1억 돌파, 축포 대신 '비상등'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 악화

이집트는 '인구 1억명'을 달성했지만 축포가 아닌 비상등이 켜졌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11일(카이로 현지시간)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이날 낮 중부 미니아주에서 1억번째 국민 야스미네 라비에라는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인구 1억명 돌파를 축하하기보다는 인구 급증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집트의 실시간 인구 수를 보여주는 스크린.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고질적 경제난과 고실업, 교통난, 주택난, 인프라 부족은 더욱 악화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시시 대통령 정부가 인구 급증을 '위협'으로 여기면서도 전략과 행동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아인아인삼스대학의 아르미 A 나딘 박사는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과 진정한 대처 전략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라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목요일론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부장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다. 전국의 17개 시도를 비롯해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1월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육회 출범을 알렸다. 제주에서도 도체육회와 양 시체육회 민선 회장을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0년은 제주에 체육단체가 탄생한지 100년을 맞는 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일합병 이후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확고하게 제주 체육인들의 자주적인 체육단체로 내세울 수 없기는 하지만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 당시 제주에 진출한 일본인 공동 참여 모

민선체육회 출범과 제주체육 백년대계

임 성격의 '제주체육회' 발족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의 창립된 제주체육회 회장은 제주에 있던 일인(日人)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전 1912년도부터 제주 성내 청년 모임인 '용진회'를 비롯해 '탐흥회', '선봉회' 등의 청년단체에서 체육과 문예부 등을 뒤 활동했던 기록들도 확인되고 있어 제주체육회 창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추측은 가능한 일이다.

해방 이후 민간 체육회장 시대를 연 것은 1946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도제(道制) 실시 즈음에 체육인 15명이 모여 '제주체육회'를 발족하고 민간인 회장을 선임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후 4·3과 6·25를 거치면서 뚜렷한 체육단체의 활동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전란의 와중인 1951년 6월 15일 제주도체육회를 창립해 당시 제주도 총무국장을 회장으로 선임 한 바 있

다. 이후 제2대에서 4대까지 민간인 회장이 체육단체를 이끌어 오던 중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당시 부임한 도지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기 시작해 1968년에 들어서는 도지사를 당면직 회장으로 하는 체육회 규약개정이 이뤄지고 이후 올해 1월 민선체육회장 선출 전까지 50여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는 체육단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수박에 없다.

사실 민선체육회 출범에 대해 그간 많은 지적이 뒤따랐다. 지방체육회 위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성찰 없이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의 주도로 추진되면서 회의적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체육과 정치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골자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체육단체의 법적 지위나 재정에 대하여는 방치해 놓고 있었다. 뒤늦게 추가 법 개정작업이 추진됐지만 계류 상태로 제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요원한 상태다.

지방체육회가 국가와 지방행정 기관에 의존해온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국제 스포츠 교류 관계나 대내외 자치구 체육단체간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외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여왔다.

한 세기를 뛰어넘는 제주체육 역사의(歷程)의 토대 위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체육회는 이제 더 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 도민 사회에 정착하고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같이 행복을 키워나가는 단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체육 100년 역사를 디딤돌로 하여 그 과정 과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탄탄한 앞으로의 백년대계도 그려 나갈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열린마당

초미세먼지 주의보, 관심 갖고 대응하자



박동현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난 2월 10일 오후 8시를 기해 제주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막연히 지나칠게 아니라 미세먼지란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50μm(마이크로미터, 0.05mm) 이하를 총 먼지로 분류하여 지름이 10μm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300μg/㎥ 이상일 때 '경보'가 발령되고,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75μg/㎥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150μg/㎥ 이상일 때 '경보'가 발령된다.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는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으며, 주로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혈관에 흡수돼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에는 △외출 자제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으로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을 실천해 자신의 건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동애등에' 이용한 대체 산업 개발



김형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총무과

곤충은 오늘날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 식량의 30% 정도인 13억t이 버려진다. 이렇게 낭비되는 경제적 비용은 1조 달러(약 1128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파리목에 속하는 '동애등에'라는 곤충은 일반적인 파리류와는 다르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음식물 분해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환경친화적인 곤충이다. '동애등에'는 보통 37~41일의 수명 중 애벌레 시기가 14일 동안으로 하루에 2-3g의 음식물을 분해한다. 애벌레 5000마리만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10kg을 3-5일에 80% 이상 분해할 수 있다고

하며, 외국의 경우 50억 마리를 사용해 하루 24t의 음식물을 처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애등에'를 이용한 환경 정화용으로 연간 가치를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4억여원을 들여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을 진행,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만의 중장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곤충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농가육성 등 미래 농가소득 대체산업으로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연안 유인도에서 나오는 음식물분해로 이용한다면 자연순환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쾌적한 해안관광을 통한 정경 환경 지키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즉, 곤충은 인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페르카칼슘비료' (Perka Calcium Fertilizer) featuring benefits like nitrogen fixation and soil improvement, and contact info for Kos-tec Bio Co., Ltd.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프라자' (International Hearing Aid Plaza) offering hearing aid services, government support, and contact info for Hanra Hearing Aid Center.

Advertisement for '한라전설(주)' (Hanra Jeonseol Co., Ltd.) provid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ervices and contact info.